

“도서지역 불법행위 자정 노력 필요”

강임준 군산시장, 고군산군도 주요현안점검

군산시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고군산군도 도서지역 불법행위와 주민간의 갈등으로 인한 민원으로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시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이승복 부시장을 비롯한

국소장 및 관련 부서장들과 담당자들이 참석해 고군산군도 주요현안점검 및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두 시간이 넘게 지속된 이날 주민간담회에서 강 시장은 주민들 스스로가 불법행위에 대해 자정 노력이 필요하

다고 당부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불법행위와 주민들의 민원으로 고군산연결도로 개통 이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도서지역이 병들어가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해 행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질 터이니 더 이상은 불법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또 강 시장은 일부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문제 지적에 대해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답장이 생기면 항상 행정 탓을 하게 된다”며 “군산시가 주민들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한 기준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주민간담회는 지역의 발전에 대한 의견은 없고 오로지 민원 당사자들의 상대 협박기에 불과해 일부 주민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익명을 요구한 선유도 주민 A씨는 “도로가 연결되고 관광객들도 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서로를 비난하고 다투는지 안타깝다”며 “군산시가 나서서 주민들끼리의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서 기대를 하고 나왔는데 역시나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도 “누가 불법행위를 한다고 따지기 전에 민원을 제기한 자신들 스스로가 떳떳하지 생각해야 한다”며 “하루 빨리 예전처럼 서로 웃고 소통하는 잘 사는 선유도 다시 찾고 싶은 선유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군산시는 고군산군도 일대의 쾌적한 도서환경 및 명품 관광지 조성을 위해 관련 14개 부서와 군산경찰서 등 16개 유관기관, 단체와 일제정비를 실시해 불법건축·광고, 무신고 음식점, 불법영업행위, 사유지 불법사용, 국유지 불법점용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전수조사를 펼쳐 행정처분을 내렸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가 고군산군도 불법행위 갈등으로 인한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고군산군도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군산시드림스타트, 취약 아동 위한 후원협약

군산시 드림스타트와 군산시사회적기업협의회(대표 최당현)는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및 후원물품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및 가정에 청소, 소독, 도배, 수리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물품을 후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식 이후 군산시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는 드림스타트 아동들을 위한 의류 50여점을 전달했

며, 회원 10여명은 옥산면 드림스타트 대상 1가정을 방문해 청소 및 해충 방제 등을 실시하고, 수납장 지원과 함께 정리정돈을 해주는 등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실시했다. 확대성 어린이행복과정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꾸준히 도움을 주고자 하는 군산시사회적기업협의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군산시사회적기업협의회의 따뜻한 관심과 후원이 드림스타트 아동과 그 가족의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는 2019년도 후계농 및 청년창업농 지원 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익산시, 교도소 세트장 확충 관광객 유치

익산시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도소 세트장 확충에 나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영화의 거리 조성 및 체험시설 확충

을 위해 교도소 세트장 인근에 보조 촬영장을 조성한다. 올해 13억원을 투입해 성당면 교도소 세트장 시설 보강과 함께 보조촬영장을 마련한다. 보

조촬영장에는 소법정과 식당 등이 들어서게 되며 관광객을 위한 포토존, 전망대 등이 산책로와 함께 조성된다. 영화의 거리는 20~40대 관광객 유

치를 위해 1970~1990년대 거리의 모습이 재현된다. 3월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등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교도소 세트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각종 체험시설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 예비 농업경영인 지원 사업설명회

군산시는 예비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지난 11일 농업인회관 대강당에서 2019년도 후계농 및 청년창업농 지원 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2022년까지 ‘청년농업인 1만 명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인 정부의 방침에 따라 후계농과 청년창업농 지원 사업 설명회를 통해 젊고 능력 있는 농업인 양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업설명회는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농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많다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농정과와 농촌지원과에서는 직접 사업설명, 계획서 작성요령 등 실무사례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사업설명

회를 통해 후계농 및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농업 창업을 희망하는 젊은 인력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미래농업 전문 인력의 확보는 물론 창업농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은 만 18세 이상~만 50세 미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기술 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매매를 연계 지원해 건실한 경영체로의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는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여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이끌어 내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시민 참여자 모집

군산시는 민원행정 서비스 등에 대한 시민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개회 시 개선사항 및 친절도 제고 방안 등 의견을 제시할 시민참여자를 14일부터 2월 13일까지 1개월 동안 모집한다.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은 분기별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친절·소통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친절 마인드 강화 및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군산시는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개회 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친절교육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교육과 함께 평소 대민 행정서비스를 통해 느낀 경험담 및 개선 사항 등 시민의 소리를 들으며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예정으로, 제시된 시민들의 의견은 추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민원봉사과장은 “공무원 친절교육과 더불어 시민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 민원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감동과 신뢰를 주는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광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